

## 일본의 람사 조약 습지

일본은 1980 년에 람사조약에 가입하고,쿠시로습원을 국내 최초로 람사조약습지로 등록했다.

1993 년에는 제 5 회체약국회의가 쿠시로시에서 개최되고, 국내및 아시아지역에 있어 람사조약의 의의가 널리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그후,국내의 조약습지의 수는 순차적으로 증가되고,2002 년 제 8 회체약국회의까지 13 여곳으로되었다.나아가,2005 년 11 월,제 9 회체약국회의에 맞추어,일본은 새롭게 20 여곳의 습지를 조약습지로 등록하고,국내의 조약습지는 합계 33 여곳으로 되었다.

이것은,1999 년의 람사조약 제 7 회체약국회의에 있어,당시 약 1000 여곳이었던 세계의 조약습지를 2005 년까지로 2000 여곳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정하여진 것을 받아들인것이다.이것을 받아들리고,일본은 당시 11 여곳이었던 국내의 조약습지를 2005 년까지 22 여곳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향해 대처를 진행해 왔다.

일본의 조약습지는,종래수조의 생식지로써 중요한 습지가 주체였지만 새롭게 등록되어진 조약습지에는

습원,호서,염성습지,간척,조장,모래사장,맹그로브림,산호초,지하수계까지 각양각색의 타입의 습지가 포함되고,

일본의 습지생태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있다.

또,지금까지 조약습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일본에도 수없이 조약습지가 탄생하고 지역적인 바란스가잡혀졌다.

그리고,일본에서는 람사조약습지의 선정에 따라,①조약의 정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②국가의법율(자연공원법, 조수보호법등)에의해, 장래에 걸쳐 자연환경보전이 도모되어질 것,③그 고장주민등의 등록에 찬의를 얻을수 있는것을 조건으로 한다.